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는 10월 11일 새벽부터 28km를 걸은 대중들이 피로를 잊고 아도화상 헌향재를 개최했다. 고구려에서 신라로 수만리를 걸어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이 순례단을 굽어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이 헌향하기 위해 천년대향로를 건네받는 모습.

아도화상 신라불교 전법 의지 되새기다

만행결사 자비순례 **10월 11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서 헌향재**

구미=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5일간 130km걸어 도착한 초전지서
순례단들 불교 중흥을 새롭게 다짐
1600년 원력 상징 천년대향로 공양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를 전하기 위해 수만리를 걸은 아도화상의 모습이 이랬을까.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 도착한 결사대중의 모습은 5일간 130km를 걷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법구도의 의지는 높아만 보였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은 10월 11일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 도착하여 아도화상 헌향재를 진행했다.

이번 헌향재를 위해 결사대중은 10일 숙영지에서 새벽 4시에 출발했다. 대구서부터 4일간 100여 km를 걷고 다시 5일차 28km의 구간. 자원봉사자들과 의료팀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수일간의 순례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10일까지 관절염증과 근육통, 물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이들만 43명에 달했다. 하지만 11일 신라불교초전지에 도착한 결사대중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초전지 초입부터 구미 지역민들은 꽃비를 뿌리며 결사대중을 맞이했다. 점심공양을 겸한 잠깐의 휴식시간 후 결사대중은 신라불교초전지 아도화상 동상 앞에서 헌향재를 열었다. 헌향재에서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은 결사대중을 대표해 천년대향로를 아도화상 전에 올렸다. 천년의 역사를 이어 불교중흥의 원력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였다. 이어 도리사 회주 법등 스님, 종회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의 순으로 헌향이 이어졌다.

헌향 후 격려사에서 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지난 겨울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수행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중무문관 수행으로 참선수행이 한국불교 수행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켰고, 사부대중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며 "부처님이 걸어서 전법을 하셨듯, 올해는 만행의 형태로 결사를 추진함으로서 수행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위한 걷는 수행으로 불교의 새로운 바람이 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최고령자인 호계원장 무상 스님은 "아도화상이 신라불교를 개척한 역사를 배웠지만 현지에 와서 보는 것은 다르다. 학생들과 일반인들도 결사를 계기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향재 후 결사대중은 신라불교초전지 초전기념관을 참관했다. 아도화상 진영을 비롯해 이차돈 순교비 등을 보며 결사의 원력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한편 11일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결사대중을 찾아 격려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자비순례는 한국불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결사 정신을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펼쳐보이는 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남은 기간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을 하나로 모아 불교의 새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전했다.





10월 12일 경북 의성 낙단보 마애불 앞서 열린 법회에서 2010년 10월 당시 총무원장으로 마애불 보존에 앞장섰던 자승 스님을 비롯해 순례단은 원력을 새롭게 다졌다. 오른쪽 사진은 낙단보 구간 일일참여 순례를 진행하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및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순례단의 모습.

10년 거슬러 만행결사와 만난 마애불 원력

만행결사 자비순례 **10월 12일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서 법회**

2010년 10월 마애불 발견 후 10년
회주 자승 스님 불사 원력 서린곳
6일차 11km 걸어 법회 후 방생도

2010년 10월 6일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발견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낙단보 마애불. 공사과정에서 훼손될 뻔한 마애불을 지켜내고 마애사 불사까지 일군 원력이 10년이 지난 2020년 10월 12일 만행결사 자비순례라는 이름의 새로운 원력과 맞닿았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은 자비순례 6일차인 10월 12일 경북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 앞에서 법회와 함께 방생의식을 가졌다. 2010년 직접 마애불 지키기에 나섰던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은 감회가 남달라 보였다.

12일 새벽 3시 40분 구미 신라불교초전지에서부터 12km를 걸은 상황에서 자승 스님을 비롯한 결사대중은 낙단보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애불을 참배했다.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의 만행결사 순례길에서 낙단보 마애불이 있는 의성 생송리를 거쳐 가는 길은 많은 거리를 돌아서 가는 코스다. 그럼에도 결사대중이 낙단보 마애불을 향한 이유는 마애불을 지켜낸 원력과 불교 중흥을 꿈꾸는 만행결사 원력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낙단보 마애불로 알려진 의성 생송리 마애보살좌상은 2010년 10월 6일 낙단보 구간 발파 작업 중에 발견됐다. 성보를 잃어버릴 위기에 조계종은 10월 20일 성명을 내고 26일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이 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이 당시 조계종은 정부당국에는 소중한 성보유산을 보존해줄 것을, 불자들에게는 성보의 존재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에 불자들의 원력이 모여 12월부터 구미 대둔사 주지 진오 스님이 매일 예불을 올리기 시작했고, 2011년 2월 1000여 사부대중이 생명살림 1080배 정진을 올리며 결국 마애불을 지켜냈다.

의성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부처님이 걸은 전법의 길을 따라 나라가 평안해지고 지역불교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사대중이 이 곳을 찾았다. 바위를 파괴하려다 부처님이 발견된 것을 알고 자승 스님께서 한걸음에 달려오셨고 이후 2017년 마애사 건물 기공까지도 있게 해주셨다"며 자승 스님을 비롯해 뜻을 모은 불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결사대중을 대표해 중앙종회 부의장 법원 스님은 "순례와 불사에는 함께 이를 이루는 수많은 대중들이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날 법회에 함께 참여한 고운사 등 지역불자들과 결사대중을 격려했다. 마애불 법회 이후에는 낙동강 유역의 생태회복을 기원하는 방생도 진행됐다.

낙단보 마애불을 지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는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기치로 건 만행결사도 당시 불자들이 결집을 이뤘듯 마음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의성=노덕현 기자

10월 16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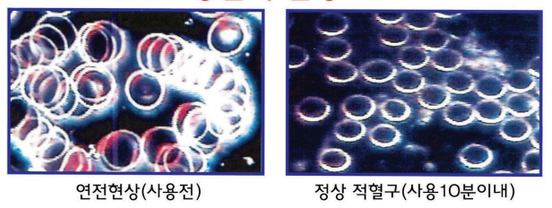
1일차 동화사 입재식 ▶ 5일차 신라불교초전지 132km ▶ 6일차 낙단보 마애불 163km ▶ 9일차 문경 대중공사1 212km ▶ 11일차 문경새재 368km ▶ 14일차 충주 중앙탑 350km ▶ 17일차 양평 대중공사2 411km ▶ 20일차 상월선원 488km ▶ 21일차 봉은사 회향식 501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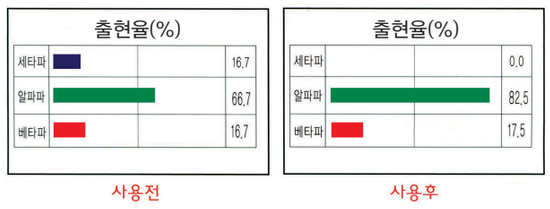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액,세포,뇌파를 건강하게하는 게르마늄허브비누
포도상구균 99.9% · 폐렴균 99.9% · 대장균 99.9% 정균감소기능으로 아토피, 무좀, 검버섯, 뾰루지, 여드름,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개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릅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 41년 3월생 개발자 본인은 관절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고, 안경없이 신문을 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